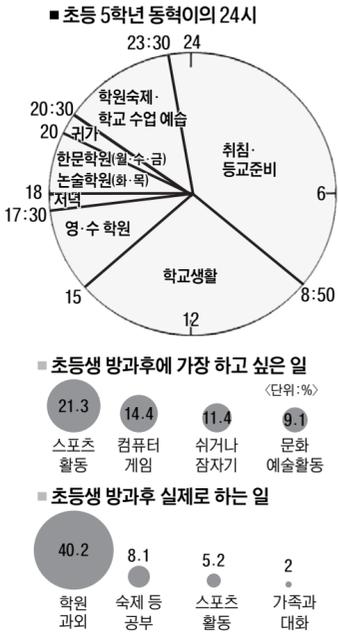


학교·학원 12시간 ‘철타퀴’... 탈출구 없는 초등생들

오늘 어린이날... 요즘 아이들의 하루는



지난 1일 오후 5시 광주시 남구 봉선동 학원가에는 책가방과 간식 주머니를 든 초등학생들이 바빠 움직이고 있었다. 영어 단어를 암기하며 걷는 아이, 길에서 간식을 먹는 아이, 쪼그려앉아 학원 버스를 기다리는 아이들... 학원가 주변 도로도 아이들을 태운 학원 통학 버스와 학부모 차량으로 붐볐다. 초등학교 4학년 유빈이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영어 단어수첩을 손에 놓지 않았다. 같은 반 친구를 마주친 자리에서 “넌 무슨 학원가니?”라는 짧은 대화만 나눈 뒤 바쁘게 학원으로 향했다. 유빈이는 “학원 영어단어 시험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길어갈 때도 영어단어를 봐야해서 친구를 만나도 잠시 놀 틈도 없어요”라고 말했다.

다. 광주시 남구 봉선동 A초등학교 5학년 동혁(가명)이의 하루는 ‘학교→A학원→B학원→집’의 연속이다. 동혁이는 학교 수업이 끝나고 오후 3시에 학원에 가서 2시간 30분 동안 영어, 수학 수업을 듣는다. 저녁에도 학원을 벗어나지 못한다. 월·수·금요일은 한문학원, 화·목요일에는 논술학원에 가는 식이다. 학원 때문에 저녁밥도 대충 때워야한다. 오후 6시까지 학원을 옮겨가야 해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동혁이는 그래서 편의점이나 분식집에서 김밥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다. 동혁이는 “나는 토요일이 제일 좋아요. 토요일은 수학 학원만 다녀온 뒤 오후엔 친구들과 놀 수 있거든요”라고 말한 뒤 활짝 웃었다.

방과후 가장 하고 싶은 일 운동하며 뛰어놀고 싶은데 현실은 40%가 학원·과외

밤 11시 ‘파김치 귀가’도 “엄마·아빠랑 놀고 싶어요”

학교 신체검사서에서 소아 비만 판정을 받았다가는 인철(가명·10)이는 국·영·수 학원에 간다. 학원을 마치고 집에 온 뒤에는 학습지를 풀어야 한다. 공부 말고도 주중에는 권투 도장, 일요일에는 농구교실에 다녀야한다. 인철이는 “엄마가 살을 빼야한다면서 운동 학원에 보내고 있어. 나는 친구들과 놀면서 운동하고 싶은데 엄마는 나와 생각이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가정의 달 5월에도 우리 아이들의 하루는 학교, 학원, 시험의 연속이다. 상당수 초등학교에서 시험은 사라졌지만 그 빈 자리는 학원과 학원에서 치르는 시험이 차지했다. 학생들은 “학원 시험 준비를 하느라 학교 생활이 더 바빠졌다. 학교에서 학원 시험공부하는 날도 많아졌다. 엄마 아빠와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과 놀고 싶지만 우린 시간이 없다”고 호소했다. 많지 않은 학생이지만 밤 11시까지 학원에 머무른다는 초등학생도 있고, 영어 단어 100개를 외우기 전까지는 학원을 벗어날 수 없는 소위 스파르타식 학원도 생겨났다. 학교와 학원에서 12시간 이상을 빼야한다면서 운동 학원에 보내고 있어. 나는 친구들과 놀면서 운동하고 싶은데 엄마는 나와 생각이 많이 다르다”고

달리는 식으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초등학생 1163명을 상대로 조사한 ‘2014 광주학생 생활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아이들이 방과 후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스포츠 활동(21.3%) ▲집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14.4%) ▲그냥 쉬거나 잠자기(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 실제로 하는 일은 ▲학원 및 과외 수업(40.2%) ▲스포츠 활동(5.2%) ▲가족과 대화(2%) 등의 순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초등학생 1269명에게 평일 귀가시간을 묻자 ▲오후 7~9시에 귀가하는 어린이가 37%(469명) ▲밤 9~11시에 귀가하는 어린이가 10.6%(135명) 등으로 조사됐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땅따먹기 놀이·텃밭가꾸기... 이런 방과후 학교도 있어요

담양 ‘푸른별 자연학교’
맘껏 뛰놀게 하고 싶어 학부모들이 각출해 운영

광주에서 자동차로 30여분 달려간 담양군 대전면 평장리에는 조금은 특별한 방과 후 ‘학교’가 있다. ‘푸른별 자연학교’라는 방과 후 활동 공간은 설립 과정과 수업 내용, 등 학교 방식 등 모든면에서 자연과 함께 하는 아이들에 맞춰져 있다. 푸른별 학교는 지난 2004년 광주시 북구와 광산구지역 초등학생, 유치원생 학부모들이 농촌 폐가를 구입해서 설립했다. 학교 운영은 학부모들이 각출한 돈으로 꾸려지고 있다. 현재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등 10여명의 학생이 교사 3명의 가르침 아래 배움을 이어가고 있다. 진행되는 수업도 사뭇 다르다. 텃밭가꾸기, 마을 산책, 풀놀이, 솔레잡기, 땅따먹기 놀이 등 자연과 함께 하는 생태학습과 마리와 몸을 함께 쓰는 놀이로 구성된다. 광주에서 정규수업을 마친 초등학생은 당번을 맡은 학부모들의 차량에 나눠타고 이곳으로 이동.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수업을 듣는다. 학생들은 먹는 간식도 생활협동조합이나 텃밭에서 마련한 건강한 먹을거리로 채워진다. 봄과 가을에 열리는 운동회와 일일 장터, 인형 만들기, 떡

매치기 등 학부모 참관학습 시간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은 수시로 머리를 맞닿 기회를 갖는다. 이곳 학부모들은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담양의 마을까지 아이들을 통학시키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교육 공간을 선물해서 맘껏 뛰놀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 2명을 이 학교에 보낸 방소형(여·46)씨는 “광주에서만 학교에 다닌다면 과연 하루에 한 번이라도 흠을 만져볼 기회가 있을까”라며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입시 경쟁에 몰아넣기보다는 자연에서 삶의 본질을 가꾸는 교육을 하고 싶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소망 담은 종이비행기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최로 열린 ‘어린이 놀이현장 선포식’에서 어린이들이 행사를 마치고 분수대 앞에서 소망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의 놀 권리 존중하자’ 전국 시도교육감협 ‘어린이 놀이현장’ 선포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헌장을 발표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협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어린이 놀이현장’ 선포식을 했다. 어린이 놀이현장은 ▲어린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차별 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놀 터와 놀 시간을 누려야 한다 ▲어린이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해야 한다 ▲가정, 학교, 지역 사회는 놀이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5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선포식에는 장휘국 협회장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어린이 놀이현장은 지난 1월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제안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만장일치로 합의해 이번엔 빛을 보게 됐다. 시도교육청은 놀이현장 선포식을 계기로 어린이에게 충분한 휴식과 놀이 시간을 보장하고, 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는 등 10대 공동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휘국 협회장은 “세계 각국은 어린이들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조기 교육 과열과 지나친 사교육 등으로 놀이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며 “미래의 꿈나무로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국가 차원의 관심과 역량을 모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박병중 고흥군수 선거법 관련 재정신청 인용... 기소 임박

광주고법 형사 2부(박병철 부장판사)는 4일 박병중 고흥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박 군수를 기소해야 한다. 재판부는 박 군수가 비록 오버마 미국 대통령 봉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선거 공보물에 기재되도록 한 사실은 위법적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고발된 고길호 신안군수에 대한 재정신청을 지난달 기각했으며 이용부 보성군수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 여부도 곧 결정할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헤어진 여친 1년 넘게 스토킹

○헤어진 여자친구 1년 이상 따라다니며 폭행, 협박하는 등 스토킹 짓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철장 신세. ○4일 광양경찰에 따르면 A(52)씨는 지난해 2월 사귀던 여성 B(56)씨가 결별을 선언하고 만나주지 않자 집과 직장을 수시로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며 상습 협박한 데 이어, 지난 달 24일 밤엔 B씨의 집에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했다는 것.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마음을 돌리려 수시로 찾아가긴 했지만, 협박이나 스토킹 짓은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 /광양=배영재기자 byj@

신축 원룸 매매

관심 끌
전대정문 2분! 후문 2분!(신축 4층건물)
월세 인기 좋음 / 임대 걱정 없음
룸12개, 올대리식시공, 신축 (1층점포 1개, 2~3층룸 10개, 4층주방 1개, 옥탑) 옥상에 피라사 설치
월수익 500만
매매가 6억 7천

추천 물건

- 전대정문 2분 룸20개 (1층상가2칸) 월수익 700만 매매가 7억8천
- 북구 용봉지구 상대 2분 코너 룸 21개 (상가2, 주택1) 엘리베이터 있음. 월세 800 매매가 11억
- 북구 두암동 동신대 원룸 19개 (상가1, 4층 주택) 월세 850 매매가 11억 5천
- 수원지구 상가매매 (4층중 3층) 월수익 150만 매매가 2억5천

010-6832-9700
010-7384-7800

상가건물매매

〈나주시 삼영동 2층 건물〉

1층 6칸, 2층 2칸
토 205평, 건 47평
나주 영광초교 정문 앞
학원건물 적합

※학원 / 도장 / 분식점 운영적합

월수익 200만 매매가 3억

| | |
|--|---|
| ① 동구 충장로 상가 5층 학원건물 동부경찰서 앞. 매매가 15억 | ⑤ 수원지구 모래밭 4층중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9천 매매가 3억5천 |
| ② 서구 삼우지구 정면 3층 상가 30평 (보 1천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 | ⑥ 수원지구 롯데마트 옆 월150만 매매가 2억5천 |
| ③ 나주시 삼영동 상가건물 2층 영광초교 앞 1층 6칸, 2층 4칸 매매가 3억 | ⑦ 서구 삼우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23평 보 3백 월 32만 매매가 8000만 |
| ④ 서구 삼우지구 5층건물 월세1천8백 매매가 20억 | ⑧ 삼우지구 수림오피스텔 13평 매매가 58만 |

010-6670-9800
010-7384-7800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5층〉

상무지구
사무실임대
5층

- 상무지구 중심 금융가 도로 현대자동차 뒷편
- 이면도로 코너
- 엘리베이터 완비, 무료주차4대
- 주변 주차시설 300대 완비됨

즉시입주가능, 내부시설완비
학원적합, 보험사무실 적합

적극추천 ★

임대가 보3,000만
월 140만

062-382-5500
010-7384-7800

(주)대신경매

이제 경매는 대중화 시대
입찰부터 매매 임대까지

수익성 상가 (근린 상가)

- 서구 금호동 7층상가 (235㎡) 감평가 6억5천/최저가 2억9천
- 북구 본촌동 만성빌딩 3층중 1층 (586㎡, 건 276.18㎡) 감평가 14억/최저가 9억6천
- 북구 중흥동 씨나스전대/10층중 1층 (20,032㎡, 건 46.96㎡) 감평가 2억3천/최저가 9천

수익성상가 (근린주택)

- 광산구 소촌동 (토 400㎡, 건 294㎡) 감평가 3억7천/최저가 1억3천(세차장, 카센터)
- 서구 양동 (180.5㎡, 건 259.2㎡) 감평가 3억3천/최저가 2억3천(2층건물/1층상 2층주택)
- 목포 산정동 (토 63.75㎡, 건 199.2㎡) 감평가 1억3천/최저가 7천100만 (3층건물/1층점포, 2~3층주택)

수익성 상가 (근린 시설, 통건물)

- 나주송월동/복합상가(건축) (토 8474㎡, 건 11735㎡) 감평가 152억/최저가 68억
- 전주완산구호지동 (토 502,453㎡, 건 689,083㎡) 감평가 125억/최저가 13억
- 광양시중동 (토 767㎡, 건 3276.78㎡) 감평가 126억/최저가 21억

공장 / 주유소 / 모텔 / 특수물건

- 광산구하남/공장 (토 174.3㎡, 건 2635.72㎡) 감평가 14억/최저가 6억9천
- 북구 양산동/공장 (토 3653㎡, 건 4489.61㎡) 감평가 36억/최저가 25억
- 북구 월출동/공장 (토 지매각제외, 건 1458.9㎡) 감평가 10억/최저가 10억
- 광산구 정목동/공장 (토 지매각제외, 건 114.46㎡) 감평가 36억/최저가 29억
- 광산구 월계동/무인텔 (토 1522.5㎡, 건 1999.65㎡) 감평가 34억/최저가 34억

바닷가 편성 경매추천 물건

- 경남 고성시회현 (토 13665㎡, 건 2667.16㎡) 감평가 43억/최저가 8억 (편성 바다근처 건물캐트 시설중음(특수물건))

★ 경매원에서 배우실 분 환영
★ 경매 직원구함 (남, 여)
★ 경매 컨설팅하실분 (상무지구, 운암동, 법원)

010-6670-9800 / 010-7384-7800

경매교육(매주 초 개강)

①경매 기본교육 + 실전주주 교육
②VP실전반(특수물건, 지분)

컨설팅 직원구함
-경매학원, 경매 컨설팅 같이 근무 할 직원 모집합니다. 책상 지원 등

062-382-5500

경매 물건 추천

- 서구 금호동 7층상가(유용상가) 건 296㎡ 감평가 6억6천 → 최저가 2억9천 (상권좋은, 시설좋은)
- 전남영광군 법성면 (3층/근린주택) (토 144㎡, 건 819㎡) 감평가 10억 → 최저가 4억8천 1층~2층상가 3층주택 (건물 바로 앞 도로 및 바다)

062-527-7600
010-7384-7800